

# 기상청, 미국해양대기청과 기상위성·인공지능 분야 양자 협력 논의

- 제9차 한-미 기상협력회의 개최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4월 23일(목) 서울청사에서 미국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과 제9차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양 기관은 2005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격년으로 협력회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기상청이 회의를 주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현황과 주요 업무를 공유하고, 후속 기상위성 개발과 위성·레이더 산출물 활용, 수치예보모델 개발 등 총 7개 분야 협력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위성 기반의 우주기상 관측 기술 개발 협력, △정지궤도 위성 관측 및 과학 협력, △정지궤도에서 우주기상 관측 기술 협력, △기상레이더 운영 및 활용 기술, △기상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협력, △극지역 수치모델 분야 연구개발 협력, △열대성 저기압 사례연구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후속 기상위성 개발을 위한 위성 탑재체 관련 기술 상호 공유와 공동논문 발간, 기상위성·기상레이더·수치예보모델 분야 전문가 교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 성과 공유 및 공동 워크숍 개최 등 지속적인 협력 추진에 합의하였다.

회의 이후 미국해양대기청 대표단은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등 기상청 주요 시설을 방문한다.

미국 기상청장(Mr. Kenneth Graham)은 “최근 극한 기상 현상이 잦아지면서 예측 역량을 높이고 이를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한국기상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상예측 기술 전반에서 역량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독자 수치예보모델 개발과 고품질의 관측 자료 등 기상선진국으로서의 우수한 기상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기상청의 강점을 기반으로 위험기상 조기경보 강화를 위해 차세대 위성 관측 및 기상분야 인공지능(AI) 기술 등 한-미 기상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9차 한-미 기상협력회의 사진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마승완 (042-481-7320)
		담당자	사무관	이소영 (042-481-7316)





| 협력회의 사진 |